

21세기 기독교대학의 이념 - 칸트와 흄스를 넘어서*

The Idea of Christian University in the 21st Century

이국운 (Kukwoon Lee)**

ABSTRACT

While presupposing the time-space specificity of Korea in 2025, this article aims to go beyond the constraints as much as possible and suggest the direction Christian university should move forward after the 21st century. The author seeks to find the origin of the university system in Christian optimism, which stems from the belief of the ultimate compatibility of the system of faith and reason, and tries to confirm whether it can adequately respond to the challenges of extremes that threaten such a stance. To this end, he searches what kind of structure medieval European universities created to achieve a dynamic balance of faith and reason and how the structure transformed after the modern era of the West under the rule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Moreover he explores the achievements of Immanuel Kant's theory of university reform and, as a result, how distorted it was, by reviewing the reality of the university movement, which has fallen into a so-called research-oriented “multiversity” at the mid-20th century. And he considers the suggestion of Arthur Holmes, who advocated a new Christian university model, especially focusing on liberal arts education at the undergraduate university level. Finally, he demonstrates the need for a new perspective of Christian universities beyond the design of Kant and Holmes in terms of the university movement based on Christian optimism.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21st-century university movement for a dynamic balance between faith and reason, transcendence and secularity.

Key words: Christian university, university movement, origin of university, history of university, university reform, Immanuel Kant, Arthur Holmes

* 2024년 11월 4일 접수, 11월 25일 게재확정

** 한동대학교(Handong University) 법학부 교수, 경상북도 포항시 한동로 558, lkwoon@handong.edu

- I. 대학의 기원과 기독교적 낙관론
- II. 중세 유럽 대학의 구조와 그 변형
- III. 칸트식 대학의 융성과 왜곡
- IV. 아서 홈스의 긴급 처방과 서구 기독교대학의 현재
- V. 21세기 기독교대학의 이념

I. 대학의 기원과 기독교적 낙관론

이 글은 2025년의 대한민국이라는 시공간적 특수성을 전제하면서도, 가능한 한 그 제약을 뛰어넘어, 21세기 이후 기독교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념적 차원에서 제시해 보려는 시도이다. 지식인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커다란 학문적 과제가 분명하지만, 앞으로 활발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론적 수준에서나마 용기를 내보고자 한다. 논의의 출발점은 대학이라는 제도의 기원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역사적 맥락에서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대학이라는 고등교육·학술기관의 기원은 중세 유럽의 기독교 문명에 소급된다. 다른 지역, 다른 시대, 다른 종교가 배경인 문명들 가운데도 오늘날의 대학에 비견할만한 제도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인류 문명이 가지고 있는 대학이라는 제도가 중세 유럽의 기독교 문명에서 발생했고, 많은 변화 속에서도 연속성을 유지해 왔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역사적 기원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학이라는 제도의 발상에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세계관적 태도와 구분되는 특별한 기독교적 태도 또는 접근방식이 전제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약간 도발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오늘날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대학이라는 제도가 기독교적 기원을 가진다는 주장인 셈이다.

오늘날 서구 문명의 많은 국가에서 대학은 세속주의(secularism)의 온상이자 침병이 되어 있다. 심지어 이 세속주의는 상황에 따라 권력이나 금력과 결탁하여 대학을 관료적 차원이나 상업적 차원으로 타락시키기까지 한다. 이러한 형편에서 방금 제기한 주장, 즉 대학이라는 제도가 기독교적 기원을 가진다는 명제는 시대착오적 판단으로 간단히 무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과감하게 생각을 정반대로 바꾸면, 현재 상황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서구의 대학이 세속주의의 온상이자 침병이 된 역사적 과정 및 그 인과관계, 그리고 그 대응책에 관해서는 지난 세기 이래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Jaspers, 이수동 역, 1997 ; Shils, 안계춘 역, 1992 ; 김영식, 2007 ; Lewis, 허명수 외 역, 2008 ; 박영신, 2022 등). 범위를 동아시아를 포함한 비

서구의 대학까지 넓히면 논의의 층위 및 심도는 쉽사리 정돈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고 깊어진다(김정인 2018 ; 天野郁夫, 박광현·정종현 역, 2017 등). 이와 같은 논의 전체에서 뚜렷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전제는 대학이라는 제도가 종교의 범주에서 벗어나 세속의 범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내가 제기하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이러한 평가가 중세 유럽에서 대학이라는 제도가 발생했던 지적·역사적 맥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는가이다. 만약 중세 유럽 대학이 오로지 종교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만 치부되기 어려운 또 다른 특징을 내포하고 있었다면, 그러한 평가는 대학의 변화 및 장래 전망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추론을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구 지성사에서 세속주의나 무신론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초월적 신앙이나 유신론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안티테제로서 등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Copson 2019, 특히 2장). 이 때문에 세속주의나 무신론의 지적·역사적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그것과 일종의 대당(對當)관계에 놓여 온 초월적 신앙이나 유신론의 지적·역사적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는 오늘날처럼 세속주의나 무신론이 초월적 신앙이나 유신론의 안티테제의 차원을 넘어 급기야 유사 종교적 차원까지 고양된 상황에서는 더욱 요청될 수밖에 없는 접근이다(맥그래스 2012).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살필 때, 서구의 대학이 세속주의의 온상이자 침병이 된 오늘의 상황은 대학이라는 제도를 오로지 기독교라는 종교의 범주에서 이해하고자 했던 과거의 흐름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내가 제기하고 싶은 두 번째 질문은 대학이라는 제도의 기원을 종교나 세속 중 어느 한 범주에 환원하여 설명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이다. 이 두 번째 질문은 맨 처음에 제기했던 약간 도발적인 주장, 즉 대학이라는 제도 자체가 기독교적 기원을 가진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세속이라는 범주에 맞서는 종교라는 범주에서만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 두 번째 질문은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구도 자체가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며, 이를 해체하지 않고는 오늘날 종교와 세속의 다양한 관계 양상을 합당하게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전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대학의 기독교적 기원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과도한 도식화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이 글에서 종교와 세속의 이분법보다는 양자의 관계 짓기를 중심으로 조금 색다른 접근방식을 채택해 보고 싶다. 이를 위하여 일단 이론적으로 모든 종교 안에는 진리 추구에 있어서 신앙과 이성의 관계 맺음에 관한 특정한 대립 구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자 한다. 그다음, 그와 같은 대립 구도에서 출발하여 종교와 세속의 다양한 관계 양상을 다시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 글에서 내가 활용하려는 것은 비교적 단순한 논리이다.

모든 종교는 원초적으로 신앙의 체계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성의 체계와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다. 신앙 자체의 이해와 설명을 위해서도 그러하고, 심지어 이성이 궁극적으로 신앙의 하위 범주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며, 본격적인 진리 추구에 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관계 맺음과 관련하여 신앙의 체계로서 모든 종교가 근본적으로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고 전제할 수 있다. 하나는 신앙의 체계가 이성의 체계와 마지막까지 양립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신앙의 체계가 이성의 체계를 굴복시킬 수밖에 없다고 믿는 태도이다. 이 양자를 편의상 ‘종교적 낙관론(또는 포용론)’과 ‘종교적 비관론(또는 배타론)’으로 부른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기독교적 낙관론(또는 포용론)과 기독교적 비관론 역시 대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구도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에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큰 적실성을 가진다.

그러면 중세 유럽에서 대학의 기독교적 기원을 이룬 접근방식은 어느 쪽일까? 과문(寡聞)하지만, 종교의 세계에서 종교적 낙관론은 실천적으로 매우 드문 태도가 아닌가 싶다. 기복적 주술 종교에서부터 초월적 고등종교에 이르기까지 종교 대다수가 취하는 태도는 어떻게든 이성의 범주를 신앙의 하위 범주로 편입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이성의 체계의 독자적 가치와 중요성을 신앙의 체계가 오롯이 긍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좀체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세 유럽의 기독교 문명은 종교적 낙관론이 세력을 얻었던 매우 희소한 사례에 속한다. 예를 들어, 중세 유럽의 극성기에 최고의 지성을 대표하던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작품 『이교도대전』에 남긴 다음과 같은 언명은 이를 대표하고 있다(Aquinas 1955-57, c. 3, par. 2).

“우리가 신에 대해 고백하는 진리의 양식은 이중적이다. 신에 대한 진리 중에는 인간 이성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는 것들이 있다…하지만 자연적 이성으로 도달이 가능한 다른 진리들도 존재한다.”

실제로 중세 유럽 대학에서 기독교적 낙관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특히 자연철학과 형이상학 및 그 주석서들에 관한 강의와 토론의 자유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관철되었다(이석우, 1998). 이를 옹호하는 아퀴나스의 위의 언명으로부터 다른 종교적 문명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학이라는 특이한 제도의 기원까지는 그리 거리가 멀지 않다. 그렇다면 중세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내세웠던 종교적 낙관론을 대학이라는 제도의 기독교적 기원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대학이라는 제도의 발상에는 이렇듯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세계관적 태도와 구분되는 특별한 기독교적 태도 또는 접근방식으로서 기독교적 낙관론이 전제되어 있다. 아퀴나스는 그 자신이 파리대학의 핵심 구성

원이었다.

물론 기독교적 낙관론에 입각한 대학의 형성만으로 신앙과 이성의 체계적 양립이 실제로 완결되지는 않는다. 중세 유럽의 기독교 문명 이후 대학의 역사는 오히려 신앙의 체계와 이성의 체계 사이의 치열한 투쟁으로 점철되었으며, 양자의 길항작용은 서구의 기독교 문명을 이끈 에너지 원천 중 하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독교 문명 내부에 종교적 낙관론과 경쟁하는 종교적 비관론 역시 뚜렷한 흐름을 형성해 왔고 그 또한 제도적 표현을 확보해 왔다는 점이다. 대학 운동 또는 대학을 통한 학술 운동보다 더욱 강렬한 모습으로 제도적 교회 조직의 안팎을 넘나들며 기독교 문명을 이끌어 온 수도원 운동 또는 수도원을 통한 수도 운동은 기독교적 비관론의 단적인 표현일 것이다(Frank, 최형걸 역, 2018). 물론 현실에서 대학 운동과 수도원 운동은 때때로 중첩되거나 혼용되기도 했고, 그 결과 수도원 운동이 학술 운동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잘 알려져 있듯, 아퀴나스는 도미니칸 수도회의 수도사이기도 했고, 파리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탁발 교단 출신 교수들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이석우, 1998: 184-94, 247-49).

이 글은 대학이라는 제도의 기원을 신앙의 체계와 이성의 체계의 궁극적 양립을 지향하는 기독교적 낙관론에서 찾으면서, 대학의 실존 가능성을 그와 같은 기초를 위협하는 양극단의 도전에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이성의 체계만을 극단적으로 내세우는 세속주의의 도전이나 신앙의 체계만을 극단적으로 내세우는 기독교적 비관론의 도전을 뿌리치고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역동적인 균형을 확보하는 경우에만 대학은 실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 운동 또는 대학을 통한 학술 운동은 이와 같은 역동적 균형을 지향하며, 이른바 대학 정신은 바로 이 역동적 균형을 찾고 유지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대학에 관한 공적 담론에는 이른바 ‘대학의 몰락’을 탄식하는 논의가 적지 않다(김종인, 2004 ; 서보명, 2011; 고부웅, 2018 등). 이러한 문제 제기에는 경청할 바가 적지 않으나, 대학이 몰락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더욱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권력과 자본의 논리에 휩싸여 대학이 대학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진단은 정확한 듯하면서도 약간 핵심을 비껴가는 느낌을 자아낸다. 그 이유는 이 글이 지향하는 바처럼 신앙과 이성, 초월과 세속 사이의 역동적 균형, 그리고 이를 목표로 삼는 기독교적 낙관론에 관한 통찰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대학의 몰락’ 논의에 담긴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지점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하지만 그 위기의식을 한껏 증폭하기보다는 대학의 기독교적 기원이 중세 유럽의 기독교적 낙관론이었음을 재확인하고 이로부터 신앙의 체계와 이성의 체계가 합당한 수준의 역동적 균형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원칙으로 먼저 돌아가고자 한다(Malik, 신정숙 역, 1988).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일단 로마 가톨릭교회의 보편 통치 아래서 중세 유

립 대학이 신앙과 이성의 역동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조를 창설했으며, 그 구조가 서구의 근대 이후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살피고(Ⅱ), 그와 같은 변형을 대학 운동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칸트가 제시했던 대학개혁론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고, 또 결과적으로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Ⅲ). 나아가, 20세기 중반의 시점에서 이른바 연구 중심의 ‘멀티버시티’(mutiversity)로 전략한 대학 운동의 현실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특히 학부 대학 차원의 자유인문교양교육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독교대학의 모델을 제창했던 아서 홈스의 기획을 재검토해 보려고 한다(Ⅳ). 마지막으로 2024년의 대한민국 또는 동아시아라는 시공간적 조건 속으로 돌아와 기독교적 낙관론에 입각한 대학 운동의 차원에서 칸트와 홈스의 디자인을 넘어서는 기독교대학의 새로운 전망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증하고 간략하게나마 그 이념을 제시해 볼 것이다. 이는 신앙과 이성, 초월과 세속 사이의 역동적 균형을 지향하며 21세기 대학 운동의 방향을 제안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II. 중세 유럽 대학의 구조와 그 변형

신앙의 체계와 이성의 체계를 양립시키기 위하여 중세 유럽 대학은 다른 무엇보다 제도적 독립을 토대로 삼았다. 대학사 연구가 일반적으로 지적하듯이, 중세 유럽 대학은 학생들의 길드가 중심이 되어 강사를 초빙한 뒤 교육을 진행하던 유형(볼로냐 대학)과 연구자들의 길드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을 선발한 뒤 교육을 진행하던 유형(파리대학)으로 나뉘어 발전했다(이석우, 1988: 제3장과 제4장). 하지만 이 두 유형은 일정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학생들의 길드 또는 연구자들의 길드가 대학의 학사 운영, 인사와 재정, 내부 질서 유지에 관하여 로마 가톨릭교회나 세속적 정치권력, 그리고 그 밖의 각종 사회세력으로부터 제도적 독립을 얻기 위하여 투쟁했던 점이었다. 그 결과 중세 유럽에서 대학은 ‘하나의 체도로서’(as a corpus),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신성로마제국 사이에서 특이하게도 독립과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러한 성취는 ‘대학의 자치’라는 독자적인 이념으로 고양되었다.¹ 대학의 자치에 기반한 중세 유럽 대학의 특권으로는 신성로마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1세의 법령으로 확보된 교수와 학생에 대한 병역·부역·세금의 면제권, 독자적인 사법권, 자유로운 여행 및 신분에 대한 보장(이석우, 1988: 75-9)과 함

1) “중세 대학의 본질과 특색은 무엇보다도 교수와 학생이 누린 ‘자치’에 있다. 속권이나 교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이 ‘자치’야말로 유럽 대학이 제도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일관해 추구한 대학의 본질이며, 특정한 종파나 국가 권력에 의해 세워지고 그 권력의 ‘기관’이던 다른 문명권의 고등교육과 유럽 대학을 엄연히 구별 짓는 본질이다.” (이광주 2024)

계, 시대와 지역에 따른 변이는 존재하나, 교과과정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자율권, 학사·석사·박사 학위의 수여권, 교과과정 및 학위 수여를 총괄하는 학장·총장 등의 선출권, 그리고 학문의 자유가 침범되었을 경우의 맹휴권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중세 유럽 대학은 교회, 국가, 사회로부터 제도적 독립 및 자치권을 얻은 대가로 무엇을 제공할 수 있었는가? 오늘날 대학사 연구는 이 점에 관한 언급을 우회한 채, 대체로 대학의 구조에 대한 해명에 집중하곤 한다. 이에 따르면, 중세 유럽 대학은 신학부(faculty of theology), 법학부(faculty of law), 의학부(faculty of medicine), 그리고 교양학부(faculty of arts)로 구성되었고, 앞의 세 학부는 상급 학부를, 뒤의 한 학부는 기초 학부를 형성했다. 주지하듯, 신학, 법학, 의학의 학문적 위상이나 상호관계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고, 다음 장에서 다룰 칸트의 대학개혁론도 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하지만 이를 제쳐두더라도 그와 같은 대학의 내부 구조가 실천적으로 교회, 국가, 사회에 대한 기여와 연계되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중세 유럽 대학은 교회를 위해서 신학부를 통해 사제를 공급하고, 국가를 위해서 법학부를 통해 법률가(관료)를 공급하며, 사회를 위해서 의학부를 통해 의사를 공급했다. 세 상급 학부는 중세 유럽의 상황에서 일종의 (고급) 직업 교육(vocational training) 기능을 수행했다고도 볼 수 있다.²

이처럼 중세 유럽 대학이 누렸던 제도적 독립과 자치권을 인재의 양성 및 공급을 통한 교회, 국가, 사회와의 상호관계(reciprocal relation)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할 때,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교회, 국가, 사회를 위한 기여 말고 대학 자체의 유지와 번영을 위한 인재의 양성 및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중세 유럽 대학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교양학부(기초 학부)가 담당할 독특한 기능에서 찾아야 한다. 교양학부는 일차적으로 지성적 언어의 연마를 위한 세 가지 학문(三學, trivium: 논리, 문법, 수사학) 및 물상의 수와 양을 계측하기 위한 네 가지 기예(四科, quadrivium: 수학, 음악, 기하, 천문)를 가르쳐서 학생들에게 세 개의 상급 학부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교양학부는 장기적으로 신학부와 함께 상급 학부 전체를 아울러 대학으로서의 진리에 대한 이성적 증언을 감당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여기에는 중세 유럽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 적용했던 스콜라적 방법, 즉 모든 인식의 토대가 되는 일반 원리를 담은 소수의 ‘권위서’들을 함께 강독하고, 그 주해(註解) 과정에서 문제들을 찾아내고 사례를 검토하여 체계적인 토론을 거쳐 교수가 내리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학술적 방식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논리학과 수사학의 ‘권위서’인 아리스토텔레스의 텍스트들은 교양학부와 상급 학부를

2) 중세 유럽 대학의 구조와 운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의 네 학부 및 그 상호관계 말고도 예컨대 학장(chancellor), 대학 조합(universitas), 대학조합장(rector), 교수단(collegeia doctorum), 동향단(nation), 동향단장(proctor), 칼리지(college) 등에 관한 설명이 필수적이지만 이 글의 문제의식 및 범위를 고려하여 이 점들에 관한 논의는 부득이 생략한다.

관통하여 학문 전체를 체계화하는 방법론적 기초를 제공했고, 이를 통해 중세 유럽 대학에서 교양 학부는 인간과 세계의 근원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부(faculty of philosophy)의 역할을 담당했다.³ 중세 유럽 대학에서 교양학부의 위치는 교양학부를 마치지 않고 상급 학부에 진학하여 박사학위를 얻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잘 드러난다(Daileader, 2020).

“유럽의 주요 중세 대학들은 교양학부, 법학부, 의학부, 그리고 신학부의 네 개의 다른 학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생이 법학, 의학, 그리고 신학의 상급 학부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교양학부를 통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는 그 학생이 교양학부를 마쳤을 때, 그가 다른 세 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⁴

중세 유럽 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의 취득과정은 시대와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면모를 보였지만, 공통적으로는 앞서 말한 ‘권위서’의 강독과 토론을 거쳐 교수단의 판정을 얻어야 학사가 될 수 있었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얻기 위해서도 정해진 공개 토론에 일정 기간 참여하여 답변하거나 논지를 주장한 뒤, 생활과 품성과 학문에 대한 교수단의 심사를 통과해야 했다.⁵ 바로 이러한 전통이 이어진 덕분에 오늘날 많은 대학에서 철학이나 과학 분야는 물론 신학, 법학, 의학 분야까지도 철학박사의 학위 명칭(philosophical doctor)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⁶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중세 유럽 대학의 발생 및 성장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보편 통치가 유럽 전체에 실질적으로 관철되는 가운데 벌어졌다. 하지만 십자군 운동의 실패 및 페스트의 대유행이 도

5)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로는 교양학부에서 가르치던 윌리엄 오컴이 석사학위가 없어 정교수가 되지 못했음에도 놀라운 학식으로 ‘Venerabilis Inceptor(가경(可驚)한 초임 강사)’의 칭호를 얻었던 것을 들 수 있다.

4) 그러나 이 말은 상급 학부에 진학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양학부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법학부와 의학부는 신학의 우월성과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나름의 지적 존엄성을 얻었고, 세속적이고 돈벌이가 되는 특성에 따라 교양학부를 거치지 않은 학생들이 진학하기도 했으나, 이 과정에서 파리대학의 경우처럼 시민법의 교육이 금지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샤를 외 1999:46)

5) 다만 이들 학위는 오늘날의 석박사학위와는 다르다.(샤를 외 1999:52) 이석우에 따르면, 중세 옥스퍼드 대학의 학위제도는 교양학부에서 4~6년을 공부한 다음 학사(bachelor)가 되기 위해서는 제1시험(responsion)을 통과해야 한다. 여기서 합격하면 판정(determination)을 얻게 되는데, 이 판정을 받으면 일단 학사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판정은 사순절 동안 행해지는 40여 일간의 토론을 거치면 완전한 자격(full-fledged bachelor)이 된다. 학사가 교사자격증(licentia doendi)을 얻기 위해서는 소정의 강의과정과 연구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수 아래서 적어도 2년 이상의 강의와 연구 수련을 거친 다음에 석사학위(master's degree) 또는 교사자격증을 얻기 위한 후보로 인정받게 된다. 그 이후 또 다른 기간의 강의와 연구를 거친 다음에 교수조합에 입단(inception)하게 된다. 중세에는 선생을 마기스테르(magister), 독도르(doctor), 교수(professor) 등으로 불렀는데, 이들은 공통으로 교사 또는 교수를 칭하는 용어이다. 교수자격 및 교수단 가입 절차는 따로 있다. (이석우 1998:325-7)

6) 법학 분야에 한정해서 보자면, 학위 체계의 명칭 계보는 학문 체계에서 철학과 법학의 관계를 보여 주는 측면이 있다. 대학에서 철학부와 관련하여 형성된 최종학위가 법학 분야의 철학박사(Ph.D in law)라면, 법률가길드의 강력한 영향 아래 주로 실정법의 해석적 체계화에 시종한 전통에서는 최종학위의 명칭이 말 그대로 법리박사(Doctor of laws, LL.D), 즉 시민법과 교회법의 양법 박사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한동일 2013:196-8)

래한 중세 말엽에 이르러 대학 운동에는 커다란 도전이 제기되었다. 기실, 중세 유럽 대학은 스콜라적 방법에 집착한 까닭에 마이스터 엑크하르트 등이 주창한 신비주의 신앙 운동을 수용하지도 못했고, 노동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실험과학을 발전시키지도 않았으며, 인문주의가 주장하듯 일상어로 표현된 문학이나 관습법을 학문의 대상으로 포괄하는 데도 소극적이었다. 비록 “대학의 존재 이유는 상실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학교육, 특히 상급 학부들의 교육과 사회적인 (그리고 곧이어 정치권력들이 대신 제기한) 기대 사이의 간극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문제는 분명하게 제기되었다.” (Charle & Verger, 1999: 60)

이러한 상황에서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이 초래한 유럽 사회의 분열은 결과적으로 중세 유럽 대학의 구조에 상당한 변형을 가져왔다. 유럽 사회 자체가 로마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진영으로 양분되면서 대학들은 점차 로마가톨릭 대학과 프로테스탄트 대학으로 구분되었고, 나아가 종교적 내전을 거쳐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이후 이른바 주권국가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학에 대한 주권적 국가 권력의 통제는 갈수록 노골화되었다. 대학의 제도적 독립에 대한 위협은 특히 새로운 대학이 정치권력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기존 대학이 정치권력에 의하여 공인되는 맥락에서, 더욱 강력하게 관철되었다.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유지되었던 중세 유럽 대학의 외면적 동일성은 “다양한 지역적 관행들과 국가적 특성들에 의하여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Charle & Verger, 1999: 64) 여전히 학부 단위의 중세적 조직이 강하게 남아 있던 대학들도 있었지만, 독일처럼 ‘강좌 단위의 교수직 체계’가 성공한 대학들도 있었고, 영국의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처럼 교수와 학생과 직원이 모두 소속되는 다양한 성향의 기숙학교, 즉 칼리지(college)들이 모여 하나의 대학을 형성하는 대학들도 있었다. 이 가운데는 아일랜드의 트리니티 칼리지가나 아메리카 식민지의 칼리지들처럼 하나의 칼리지가 하나의 대학을 이루는(one university, one college) 대학 모델도 생겼다(Charle & Verger, 1999:64-5).

이처럼 중세 유럽 대학의 구조에 변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학 운동의 안팎에 제도로서의 대학과는 별개로 다수의 교육기관이 생겨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우선 신학 분야에서는 로마 가톨릭교회나 프로테스탄트 종파들이 앞서 말한 칼리지들과 함께 사제 양성을 위한 신학교(seminary)를 대학과 별개로 개설했고, 새롭게 등장한 과학 분야에서는 대학을 우회하여 예컨대 과학자들의 왕립 협회 등이 운영하는 과학아카데미의 모델이 생겼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법학 분야에서 교회법과 로마법을 가르치는 대학과 커먼로(Common law)의 도제식 교육을 담당하는 법학원(inns of court)이 상호 경쟁하는 체제가 꾸러졌다.⁷ 대학 입학 이전의 단계에도 예컨대 글라스고우 대

7) 영국의 경우에는 법실무가들이 장악하기 마련인 길드가 실정법, 즉 커먼로의 도제식 교육에 시종한 반면, 옥스퍼드를 비롯한 대학은 오로지 교회법과 로마법의 교육과 연구에 집중했다. 양자의 통합은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매우 불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국운 1999)

학의 논리학 교수이던 아담 스미스가 귀족 자제들의 튜터로 이직한 것에서 보듯이, 이른바 ‘그랜드 투어’(grand tour)를 포함한 가정교사 교육이 성행했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 공교육 체제가 형성되면서 앞서 말한 칼리지들이 대학의 교양학부 및 19세기 유럽에서 리세(lycée) 또는 김나지움(gymnasium) 등으로 이어질 고급 중등교육기관으로 분리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여기에 더하여 프랑스의 경험에서 잘 나타나듯, 시민혁명의 추진 주체가 주권국가로 귀결된 이후에는 국가 스스로 과학적 합리주의를 앞세워 종래의 대학들과 별개로 직접 고급 관료·과학자·교사·지식인의 양성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그랑제콜’(grandes écoles) 체제가 출범하기도 했다(Charle & Verger, 1999: 67-9). 이와 같은 변화 전체가 대학 운동의 존립, 특히 그 제도적 독립의 확보에 근본적인 위협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III. 칸트식 대학의 융성과 왜곡

임마누엘 칸트는 과학적 합리주의의 오용 및 극단화에 맞서서 인간 이성의 가능성 및 한계를 그 선형적·초월적 본질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철학적으로 논구했다(대표적으로 회폐 1997 등). 칸트의 마지막 저서인 ‘학부들의 논쟁’은 그와 같은 철학적 논구를 대학의 구조 및 교육에 투영한 작품으로서, 이 책에서 그는 서구의 근대에 밀어닥친 대학 운동에 대한 위협, 특히 대학에 대한 국가 권력의 통제에 대항하여 뚜렷한 대안을 제시한다. 잘 알려진 대로 칸트의 핵심 주장은 교양학부를 오로지 진리에만 봉사하는 철학부로서 대학의 중심에 배치하여 강화하려는 것이다.

칸트는 우선 국가 권력의 통제와 관련하여 하위 학부, 즉 교양학부가 세 개의 상위 학부와 구분될 수밖에 없음을 논증한다(Kant, 2012: 28-9).

“...정부는 대부분 정부로 하여금 인민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해주는 학문적 관심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상위 학부들의 대상이다. 그래서 정부는 상위 학부들의 교설들 자체를 승인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학자 공동존재를 위해 단연코 대학에는 자신들의 교설들과 관련하여 명령을 내리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판정하도록 정부의 명령으로부터 독립하여 학문적 관심, 즉 이성이 공적으로 말할 권리를 지녀야만 하는 진리에 관계하는 자유를 가지는 또 하나의 학부가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하나의 학부가 없으면 (정부 자체를 손상시키는) 진리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이성은 자신의 본성상 자유롭고 어떤 무엇을 참으로 간주하는 (믿어라crede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자유로운 믿음credo[나는 믿는다]일 뿐인)

명령을 수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어서 칸트는 정부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동인들을 각 개인의 영원한 안녕,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안녕, 그리고 신체의 안녕(장수와 건강)으로 구분하면서, 이를 각각 신학부, 법학부, 의학부의 목적에 연결한다. 그에 따르면 이 세 학부의 서열은 이성에 따를 것이냐 자연 본능에 따를 것이냐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전자에 따르면 신학부-법학부-의학부의 전통적인 순서이지만, 후자에 따르면 정반대가 된다(Kant, 2012: 32). 이 가운데 의학부는 “최고 권위를 통해 승인된 책들이 아니라 자연에 기인하여 만들어진 책들만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다른 두 상위 학부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철학부의 아주 가까운 친척이다(Kant, 2012: 40).

칸트가 보기에 철학부를 움직이는 동인은 위에서 말한 정부의 동인과 달리 스스로 받아들이거나 승인하는 교설들이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그러한 한에서 칸트는 철학부가 자유롭게 이성의 입법 아래에만 있어야 하며, 정부의 입법 아래에는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Kant, 2012:41). 그에 따르면, 철학부는 상위 학부들을 검사하고 이를 통해 상위 학부들을 유익하게 한다. 왜냐하면 학식 일반의 본질적이고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진리이며, 이 진리가 모든 것의 관건이기 때문이다(Kant, 2012:43).

“...그러므로 철학부는 모든 교설들을 그것들의 진리를 검사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가 자신의 본래적이며 본질적인 의도를 거슬러 행하지 않는 한, 철학부는 이 정부로부터 하나의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없고, 상위 학부들은 철학부가 공적으로 제기하는 이의들과 의심들을 감수해야만 하는데...왜냐하면 그러한 비판자 없이는 저 상위 학부들이 어떤 호칭 하에 있든지 간에 일반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점유상태에 방해받지 않고 머무를 수 있고, 그때 또한 전제적으로 명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칸트는 철학부를 새로운 대학의 중심에 놓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언젠가는 분명히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즉 나중인 자들이 처음인 자들이(하위 학부가 상위 학부로 될 것인데) 될 것인데, 물론 권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철학부의 자유와 그로부터 성장하는 철학부의 통찰 속에서 정부의 고유한 절대적 권위에서보다 더 낮게 정부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발견하도록 정부를 권고함에 있어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근대 서구의 대학사에서 이와 같은 칸트의 제안은 과학적 합리주의가 계몽적 전제주의와 상호결탁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항하여 신앙과 이성, 초월과 세속 사이의 역동적 균형을 재건함으로써 대학 운동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의미가 있었다. 대학의 구조와 관련하여 살필 때, 이러한 생각에는 이른바 ‘문리와 대학’(College of Liberal Art & Science)을 대학 전체의 새로운 중심으로 세우고, 상위 학부로 대표되는 (고급) 직업 교육을 대학 구조의 주변부로 재배치하려는 기획이 내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획의 배후에 계몽에 대한 칸트식 이해의 핵심인 ‘자율로서의 자유’라는 이념, 그리고 ‘진리를 향한 끝없는 자기 주도적 자기 형성(self-formation)과정으로서의 교육’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Marginson, 2019: 60).

실제로 칸트의 제안은 독일의 경우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반까지 빙켈만, 레싱, 헤르더, 괴테, 실러 등에 의하여 펼쳐진 신인문주의(Neuhumanismus) 문화 운동 속에서 ‘전인교육’(bildung)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 되었다(안성찬, 2009). 대학 운동의 맥락에서 이 흐름을 대표하는 빌헬름 폰 훔볼트는 전인교육을 인간의 유일무이한 고유성,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힘의 능동성과 자발성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원리적으로 타인에 의해 지도될 수 없으며, 그 어떤 상위 목적의 수단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전인교육의 핵심은 백과사전적인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자신과 세계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자유로운 결단에 따라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아는 판단력을 함양하는 것이다(안성찬, 2009: 118).

1809년 프로이센의 교육책임자로 임명된 훔볼트는 보편적 전인교육이 특수한 직업 교육(ausbildung)에 선행해야 한다는 원칙과 국가의 목적에 따라 국민을 교육해서는 아니 되고 오로지 개별적 인간의 자유로운 성장을 보장하는 법적 기관의 역할만 해야 한다는 원칙에 더 잡아 고급 중등교육기관인 김나지움과 대학의 철학부, 즉 문리와 대학, 그리고 상위 학부를 차례로 연계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프로이센의 국립대학으로 베를린 대학(오늘날의 훔볼트 대학)이 창립되었고, 그로부터 특히 고전어 교육에 바탕을 둔 김나지움의 교양교육과 독창적이고 비판적인 사유 능력을 강조하는 문리와 대학의 학문 연구, 그리고 상위 학부의 고급 직업 교육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19세기 독일 대학 특유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졌다. 이 모델은 시간이 갈수록 유럽과 북미는 물론 비유럽 각국의 신생 대학들에도 전해졌고, 그 과정에서 독일 대학은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대학 운동의 중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안성찬, 2009: 120 이하).

칸트식 대학의 세계적 융성 과정을 추적한 사이몬 마긴슨에 따르면, 칸트식 대학은 ①독립된 대학 법인 ②스스로 자기를 형성하는 학생 ③지식을 생산하는 교수단이라는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로 구성된다.⁸ 이 가운데 두 번째 요소는 앞서 말한 대로 칸트-훔볼트를 잇는 ‘전인교육’의 이념 및

8) “Kantian reform made university an autonomous institution in society with a combination of three essential elements: the corporate institution, the self-forming student, the knowledge-making faculty.” (Marginson 2019:61)

문리과 대학의 중심화로 상당 부분 구현되었고, 칸트식 대학의 핵심으로 지속적인 찬사가 이루어졌다. 반면 칸트식 대학의 세계적 융성 과정에서 다른 두 가지 요소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최근의 대학사 연구에서 충분히 주목되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이 조명되지 못한 측면은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동안 대학이라는 제도가 유럽과 북미에서 세계 전역으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칸트식 대학의 체계적인 왜곡을 낳았다.

우선 칸트식 대학의 독립성은, 독립된 대학 법인이라는 칸트식 대학의 제도적 외관에도 불구하고, 점차 그러한 제도적 외관을 창설하고 보증하는 국가 권력 자체가 대학의 독립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19세기 이후 유럽과 북미의 국가 권력이, 앞서 보았던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 이후의 종교적 국가 권력과 달리, 스스로 계몽주의·합리주의·과학주의·실증주의를 표상하는 세속주의 국가 권력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이다. 칸트식 대학의 독립성을 침해한 19세기 이후의 국가 권력은 일체의 종교적 색채를 배격하거나 종교적 중립성을 내세우는 세속주의 국가 권력이었으며, 심지어 유일한 공적 권위의 표상임을 전면에 내거는 국가주의적 국가 권력으로 그 자체를 고양하기까지 했다. 이는 칸트식 대학의 효시를 이루었던 베를린 대학 자체가 세속주의 국가 권력이 설립한 대학이었고,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과 북미는 물론 그 바깥의 지역에서까지 세속주의 국가 권력이 설립한 국립 대학들이 붐을 이루었던 점에서 잘 나타난다. 독일식 교육개혁 모델을 수입한 대일본제국이 1886년 도쿄제국대학을 설립한 이래 불과 수십 년 만에 강고한 제국대학 체제를 수립한 것이야말로 단적인 예일 것이다(天野郁夫, 박광현·정종현 역, 2017).

역사적 맥락에서 세속주의 국가 권력에 의한 대학의 예측을 심화시킨 핵심 고리는 애당초 국민국가의 건설에 긴요한 인재 양성, 특히 관료와 지식인의 양성이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세속주의 국가 권력에 의한 대학의 예측은 앞서 언급한 칸트식 대학의 세 번째 요소인 ‘지식을 생산하는 교수단’과 더욱 긴밀한 연계를 맺게 된다. 이른바 총력전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속주의 국가 권력은 대학의 교수단에 대하여 전쟁 수행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연구와 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을 요구했으며, 이를 위하여 그 이전 세대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수준의 대규모 연구비를 투여했다. 이 과정에서 교양학부(철학부), 즉 종래의 문리과 대학은 급속하게 대학의 중심에서 밀려났고, 그 자리를 세속주의 국가 권력의 주문에 따라 주로 이공학 및 응용학문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을 수행하는 대학원이 차지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규모 대학들에서 벌어진 이와 같은 변화는 20세기 후반에 이르자 전 세계를 무대로 일반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속주의 국가 권력이 닦아 놓은 대학의 예측은 세계적 규모의 군산복합체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예측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

고, 대학의 연구개발역량은 대학 자체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대표하는 지표가 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칸트식 대학의 ‘전인교육’, 즉 ‘진리를 향한 끝없는 자기 주도적 자기 형성과정으로서의 교육’을 표상하던 학·석·박사 학위는 대규모 연구·개발 시스템 속에서 자격과 지위를 정하는 교육적 기표로 전락했고, 주요 국가의 연구중심대학들은 글로벌 규모의 지식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권력 센터가 되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유럽과 북미, 그리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그 외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학들은, 그 각각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고 표상한다는 의미에서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세속주의 국가 권력과 자본주의 시장 권력,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사회적 권력들을 대규모의 연구와 개발을 통해 그때그때 매개하고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그야말로 ‘멀티버시티’로 변모했다.

이 과정에서 중세 유럽 대학의 구조는 더 이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변형 또는 왜곡되었다. 칸트의 기대와 달리 대규모 연구중심대학들의 경우 교양학부(철학부)는 확실히 대학 전체의 중심으로부터 밀려났고, 법학부와 의학부 역시 대학의 제도적 정체성에 관여할만한 위상을 잃어버린 채, 세속주의 국가 권력의 수요에 따라 행정 및 사법관료 또는 의료전문가를 양성하여 공급하는(고급) 직업 교육기관으로 전문화되었다. 신학부의 사정은 더욱 딱해서 대학 운동의 흐름으로부터 확연히 고립되거나, 사제 양성을 위한 신학교로 변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중세 유럽 대학의 구조가 변형, 왜곡되고 대학 운동의 중심이 비어버리자, 앞서 말했듯 세속주의 국가 권력과 자본주의 시장 권력의 주문에 따라 주로 이공학 및 응용학문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을 수행하는 대학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IV. 아서 흄스의 긴급 처방과 서구 기독교대학의 현재

1960년대 후반 유럽과 북미의 대학에서는 특히 학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학생운동’(student movement)이 대규모로 시작되었다. 흔히 ’68혁명으로 지칭되는 이 현상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 글이 주목하는 대학 운동의 맥락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학의 멀티버시티화, 즉 칸트식 대학의 왜곡에 대한 저항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저항이 실제로 대학의 개혁으로 이어져 대학 운동을 이끌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1960년대의 학부 학생들이 기성세대에 편입된 1980년대 이후 지구상에서 선진 지역에 자리 잡은 주요 대학들은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글로벌리제이션과 자본주의의 디지털화, 그리고 이른바 ‘메타버스’(metaverse)의 출현이라는 격동 속에서 대규모의 연구와 개발 역량을 토대

삼아 세계적 규모의 지식·권력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지구상의 선진 지역에 자리 잡은 주요 대학들에서 대학 운동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학생운동’은 자취를 찾기 어려워졌다. 반면, 매스미디어와 지식인 사회에는 여전히 지식·권력의 본질적 연계론에 입각한 비판적 시각이 강력하며, 이는 주요 대학들이 ‘대학 운동’의 주축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970년대 중반 미국의 기독교대학 중 일각으로부터 대학 운동의 본래 흐름을 되살리려는 진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던 것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대표적으로 북음주의 기독교대학인 휘튼 칼리지(Wheaton College)에서 40년 넘게 철학 교수로 봉직했던 아서 흄스는 기독교대학에서 학부 과정을 중심으로 자유인문교양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흄스는 19세기 중반 영어권에서 그리스 이래의 자유인문교양교육에 내포된 합리주의적 경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종교교육의 필수불가결성을 내세웠던 존 헨리 뉴먼의 입론(Newman, 1852/2008)⁹을 이어받아 ‘모든 지식은 하나의 총체를 이룬다’는 관점에서 자유인문교양교육을 정의하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러한 정의를 재음미한다(Holmes, 박진경 역, 1990: 36).

“...교양교육이 노동자 혹은 전문인 심지어 학자로서의 어떠한 특수한 기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격으로서의 사람들에게 적당한 교육이다...교양교육에 대한 이러한 단서를 인간에 대한 기독교적 개념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우리는 모든 창조적 활동과 문화적 실존과 인간성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한다. 인간성을 완전히 발현시켜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명이다. 그러므로 인간성을 개발하는 교양교육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며 그 교육적인 전개 속에 창조의 소명이 드러난다...”

이어서 흄스는 인간을 ‘반성적이고, 사고하는 존재’, ‘가치 평가적 존재’, ‘책임 있는 존재’로 이해하면서, 자유인문교양교육을 “인류의 일원으로서 인간 사회에 참여하며 보다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는 초대”라고 정의한다(Holmes, 박진경 역, 1990: 44).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적 교양과정교육을 하나님의 자기계시적 견지에서 행함으로써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가치를 평가해야 하며, 책임성 있게 행동해야 한다.”(Holmes, 박진경 역, 1990: 45)

흥미로운 것은 흄스의 이러한 주장이 칸트가 말하는 ‘오로지 진리의 편에서 있는 철학부’의 이상

9) 뉴먼은 그리스 이래의 자유인문교양교육과 기독교교부철학에 입각한 종교교육을 결합하여 ‘양심의 현상학’과 ‘신앙의 현상학’을 함께 내세웠다. (이태하, 2011: 279-304)

보다는 이 글에서 대학이라는 제도의 세계관적 기원으로 주목하는 기독교적 낙관론, 즉 신앙의 체계가 이성의 체계와 마지막까지 양립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와 매우 흡사한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All truth is God’s truth)’라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제를 이어받아,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기독교대학의 이념으로 전면으로 내세운다(Holmes, 박진경 역, 1990: 16).

“그렇다면 기독교대학은 왜 필요한가? 그 뚜렷한 목적은 신앙과 학문, 그리고 신앙과 문화의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통합을 가능케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고등교육에 있어서 기독교대학만이 가지는 독특한 과업이다. 그 통합의 현실성은 종종 완전히 이상적인 합일이라기 보다는 신앙과 학문의 상호작용, 즉 대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경건과 학문, 신앙과 이성, 종교와 과학, 기독 정신과 예술, 신학과 철학, 또는 그 외 다른 준거기준의 차이점들 사이의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대학은 마치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있는 것처럼 세속적인 학문과 과학문화에 대하여 호전적인 논쟁을 하기 위해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인 까닭에 그것이 어디서 발견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북미 영어권의 기독교대학으로 범위를 한정할 경우, 아서 홈스의 이와 같은 주장은 20세기 말에 이르러 상당한 공감과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특히 휘튼 칼리지와 칼빈 칼리지(Calvin College)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기독교대학들은 홈스의 입론을 바탕으로 성경교육과 실무적 직업교육을 곧장 연결해 온 성경 대학(Bible colleges)들과 다양한 교단 배경을 가진 소위 명목적 기독교대학들 사이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지향하는 자유인문교양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정체성 확립을 시도할 수 있었다(대표적으로 Benne, 2001 등). 새로운 세기 들어 이 흐름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북미 영어권 바깥의 기독교대학들로 확대되고 있다(예를 들어, 조용훈 2009 ; Carpenter, 2014 등).

그러나 이러한 나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서 홈스의 주장은 대학 운동 자체의 흐름을 뒤바꾸기보다는 칸트식 대학의 왜곡에 대한 과도기적이고 국지적인 긴급 처방에 그친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한 데, 첫째는 홈스의 대학혁신론이 대학 운동 자체 또는 대학인 전체가 아니라 기독교대학인 또는 기독교대학으로 청중을 제한하는 점이다. 이는 기독교적 낙관론이라는 대학 운동의 에토스를 기독교대학의 범위로만 부당하게 한정하는 측면이 있다. 범위를 더 좁히면, 홈스의 주장은 주로 로마가톨릭 진영을 배경 삼아 종교교육과 자유교양교육의 결합을 주장

했던 존 헨리 뉴먼의 노선을 그동안 로마가톨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세속주의에 우호적이었던 북음주의 프로테스탄트 진영으로 범위를 좁혀서 학부 대학을 무대 삼아 재현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둘째는 흄스의 대학혁신론이 기독교적 자유인문교양교육을 넘어 대학의 조직과 구조에 대한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다. 칸트식 대학의 왜곡으로 세속주의 국가 권력과 자본주의 시장 권력의 주문에 따라 주로 이공학 및 응용학문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을 수행하는 대학원이 대학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흄스의 주장이 ‘대학 운동’ 자체의 새로운 동력을 형성하는 차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로 인하여 그의 주장은 기독교대학의 범위 안에서조차 심지어 단순한 학부강화론으로 축소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아서 흄스의 이처럼 나름대로 적실한 주장이 기독교대학의 범위를 넘어 대학 운동 전체에서 기대만큼의 공감과 반향을 얻기 어려웠던 까닭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 이유는 19세기에 이미 세속주의의 온상이자 침병으로 전락했던 유럽 대학들의 뒤를 따라 북미의 기독교대학들조차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세속주의의 흐름에 압도당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 세대 전에 조지 마스텐이 미국 대학의 영혼을 논하면서 단적으로 피력했듯이, 원래 프로테스탄티즘의 토대 위에서 설립된 미국의 대학 운동은 20세기 동안 확립된(established) 불신앙으로 그 토대를 옮겨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다(Marsden, 1994). 기독교적 낙관론을 대학 운동의 에토스로 이해하는 이 글의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는 마스텐의 표현처럼 미국 대학의 영혼이 사라졌거나 일종의 국교화된 불신앙으로 대체되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실 이와 같은 변화는 미국이나 북미의 대학 운동 차원에서만 벌어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스탠리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그 핵심은 멀리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래 서구에서 계속되었던 ‘기독교 정체’(Christendom)의 종말이다(Hauerwas, 1999/2019). 이러한 관점에 설 경우, 유럽과 북미를 포함한 서구에서 기독교대학은 21세기 현재 지난 천 년 동안 이어졌던 대학 운동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울타리를 급속하게 상실하고 종전에는 알지 못하던 전혀 새로운 환경에 들어서는 중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중세 유럽 대학의 배경을 이루었던 로마 가톨릭교회의 보편 통치는 이미 재현 불가능하게 된 지 오래고, 북미의 경우 프로테스탄티즘이 “한때 문화적으로 국교의 지위를 가졌으나 아직 그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어색한 중간 단계”(Lindbeck, 1984 ; Hauerwas, 2019: 37 재인용)도 실질적으로 종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V. 21세기 기독교대학의 이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21세기 이후 기독교대학의 이념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오늘날의 세계에서 신앙과 이성, 초월과 세속 사이의 역동적 균형은 어떻게 정초될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도 대학 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은 ‘대학은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명제로부터 찾아야 한다(Charle & Verger, 김정인 역, 1999: 85). 이 관점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경험해 온 ‘기독교 정체’는 보편적 현상이 아니라 오로지 유럽과 북미의 서구 기독교인들에게 발생했던 국지적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부당하게 보편화하지는 말아야 한다. 비서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서구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낮은 ‘탈-기독교 정체’ 또는 ‘콘스탄틴 체제 이전의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보편적 현상이다.

나아가 서구 기독교인들이 국지적으로 경험해 온 ‘기독교 정체’를 너무 박하게 평가하는 것도 옳지 않다. 무엇보다 하나의 문명이 총체적으로 기독교 정신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숙성시킨 여러 가지 문명적 성취는 간단히 저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 이래의 민주주의 정치실험의 역사 및 그 결과 얻어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여러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완하여 발전시킬만한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여기에 그 이전 로마 가톨릭교회의 보편 통치를 배경으로 발생한 문명적 성취 중 하나를 꼽으라면, 이 글의 입장에서는 단연 대학 운동의 정신과 제도적 틀을 지목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나는 지난 천 년 동안 대학 운동을 이끌어 온 정신을 신앙의 체계와 이성의 체계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다고 믿는 기독교적 낙관론이라고 지목했다. 그리고 이를 담는 제도적 틀로는, 비록 20세기 중반 이후 들어 세속주의 국가 권력과 자본주의 시장 권력의 참입으로 인해 많이 허물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대학의 자치’라는 이념을 첫 손에 꼽아야 할 것이다. 대학 운동에서 이 두 가지 핵심 요인은 ‘기독교 정체’이건 ‘탈-기독교 정체’이건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21세기의 대학 운동은 어떻게 신앙과 이성, 초월과 세속 사이의 역동적 균형을 지향하며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독교대학은 어떠한 이념을 내세워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관하여 몇 가지 기본적인 방향을 제언하는 것으로 논의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앞서 언급한 하우어워스의 ‘탈-기독교 정체’론을 참조하더라도, 21세기 대학 운동의 새로운 동력이 ‘기독교 정체’라는 국지적 현상의 경계선 안팎에 존재하는 기독교대학들에서 정초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미나 유럽처럼 이미 세속주의의 압도로 인하여 사실상 와해 되어버린 ‘기독교 정체’의 핵심 지역이나, 새롭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 기독교적 문명의 역사와 성숙도가 일천한 새로운 지역에서, 21세기 기독교대학의 이념이나 대학 운동의 새로운 동력

이 형성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서구보다는 서구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정체’의 경계선 안팎에 놓인 기독교대학들의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바로 이 경계선 안팎에서 대학 운동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자 하는 기독교대학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나는 이 기독교대학들이 무엇보다 ‘대학의 자치’라는 이념을 전면으로 내세워 세속주의 국가 권력이나 자본주의 시장 권력의 대학에 대한 개입을 비판하고, 때로는 학술적·도덕적 차원에서 정면으로 맞서는 기개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나 시장보다는 제도적 교회를 포함하여 크리스천들이 이끄는 시민사회(Christian society)와 항상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탈-기독교 정체’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적 낙관론과 경쟁해 온 기독교적 비판론 및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베네딕트 수도 전통 등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Dreher, 이종인 역, 2019). 다만, 그 경우에도 제도로서 기독교대학들의 판단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다시 말하건대 ‘대학의 자치’여야 할 것이다. 국가나 시장이나 제도적 교회나 수도 운동과 관계를 맺을 때, 기독교대학들은 ‘대학의 자치’라는 핵심 이념을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기독교대학들은 단지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수호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대학 운동의 규범적 토대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기독교적 낙관론의 정당성을 학술적인 방식으로 주창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진리의 인식과 추구와 실현으로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가 신앙과 이성, 초월과 세속 사이의 역동적 균형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기독교 학문만이 아니라) 학문 세계 전체와(기독교대학만이 아니라) 대학 전체에 학술적인 방식으로 천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강영안, 2018).

기독교적 낙관론에 입각한 새로운 대학 운동의 무대로서 ‘학부 대학’이나 ‘자유인문교양교육’은 매우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세속주의를 앞세운 ‘대학의 멀티버시티화’가 대학 운동의 근거를 뒤흔들었던 지난 세기의 경험에 비추어 진지한 기독교대학들은 ‘학부 대학’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지향하는 자유인문교양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정체성 확립해야 할 필요를 마주하고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은 어디까지나 칸트식 대학의 왜곡에 대한 과도기적이고 부분적인 긴급 처방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미 대학의 중심이 연구와 개발을 통해 지식을 생산하는 대학원으로 옮겨진 상황에서, ‘학부 대학’이나 ‘자유인문교양교육’만을 고수하다가 자칫 기독교대학 전체가 현시대의 지식 생산 메커니즘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버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대학들은 경쟁력이 있는 영역에서부터 대학원을 통한 연구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독교적 낙관론의 관점에서 학문 세계 전체를 살피면서 종래와 같은 세속주의의 압도적 위세 속에서도 이른바 ‘탈-세속주의’(post-secularism)의 요청이 강력해지고 있는 분야들을 택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처럼 대학원의 강화를 통해 기독교대학들이 지식 생산의 첨단을 경험하는 것은 ‘학부 대학의 자유인문교양교육’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낙관론의 관점에서 자유인문교양교육은 진리에 대한 학술적인 고백과 그 한계를 동시에 가르침으로써 믿음과 의심의 끝 없는 대화를 촉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이 두서없는 소론을 마치기 전에, 나는 이 글의 주제인 21세기 기독교대학의 이념을 떠올리게 된 개인적인 계기를 짧게 기록함으로써 전체적인 논지를 다시금 분명하게 하고자 한다. 오래전 에밀 부른너가 진리를 우연한 마주침(Wahrheit als Begegnung)으로 설명했던 것이 연상될 만큼, 그것은 내 인생에서 학문과 대학의 이념을 기독교적으로 성찰하는 출발점이 되었던 하나의 벽 그림과의 조우(遭遇), 즉 아주 우연한 개인적 마주침이었다.¹⁰

1996년 여름 나는 박사학위논문의 자료조사차 독일의 마인츠대학에 머물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자료 복사가 어려운 주말이 되면 이곳저곳으로 기차여행을 다녔는데, 마침 피아노 전공의 후배가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에 있어 처음으로 그곳을 방문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이 중세 도시를 쏘다니다가 나는 잘츠부르크 대학 건물의 벽면에서 1623년에 설립된 이 대학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벽 그림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앞에서 나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에 빠졌고, 한국에 돌아와 박사학위를 받고 기독교대학의 법학 교수가 되어 지내는 동안 드문 드문 그 생각을 이어갔다. 이하는 그 벽 그림에 대한 나의 간략한 해석이다.

우선 벽 그림의 위쪽 가운데에는 신의 모상이 있고, 아래에는 좌우로 고통당하는 인간이 그려져 있다. 이는 진리의 인식과 추구와 실현을 목적해야 하는 대학은 본질적으로 이 두 차원 사이에 놓여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벽 그림에서 신과 인간의 사이 공간에는 중세 유럽 대학을 이루었던 4개의 학부 또는 학문 분과가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 배치는 앞서 이 글에서 설명한 중세 유럽 대학의 구조나 칸트식 대학의 구조와 상당히 다르다. 우선 신과 인간의 사이에서 위쪽 부분을 보면, 왼편에는 신학(theologia)이 있고, 오른편에는 철학(philosophia)이 있으며, 그림에서 양자의 높이는 동등하게 배치되어 있다. 그 아래쪽에는 다시 왼편에 의학(medicine)이, 오른편에 법학(jurisprudentia)이 있다. 이 둘 역시 그림으로는 높이가 같지만, 각각의 명칭은 위치가 다르다. 의학은 더 아래쪽, 그러니까 인간과 더 가까운 쪽이고, 법학은 그보다 위쪽, 그러니까 신에 가까운 쪽

10) <https://www.dreamstime.com/solarclock-located-salzburg-university-facade-austria-image123486497>

이다.

전체적으로 이 벽 그림은 4개의 학부 또는 학문 분과가 총체적이고 통전적인 하나의 진리 또는 진리 그 자체를 추구하며, 그 경우에 진리는 신과 인간 사이의 현상일 수밖에 없음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에 더하여 각 학문의 명칭과 함께 그려진 작은 그림들로 미루어 볼 때, 이 벽 그림은 4개의 학부 또는 학문 분과 사이에 일정한 분업 또는 순환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시적 진리는 신학을 통해 그 대강이 밝혀지고 의학을 통해 고통받는 인간을 치유하나, 인간의 삶은 여전히 갈등과 분쟁 속에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학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고, 법학으로 대처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들에 관하여는 철학이 시작될 수밖에 없으며, 그 질문들은 철학이 내놓은 부족한 답들과 함께 다시 신 앞으로 나와 계시적 진리의 조명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벽 그림 앞에서 내가 처음 떠올렸던 것은 이처럼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순환이나,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향, 다른 방식의 순환 또한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는 이 흥미로운 벽 그림 하나에 이 글에서 대학의 기원으로 지목했던 기독교적 낙관론의 관점은 물론, 21세기 기독교대학의 이념이자 대학 운동의 지향점 또한 농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잘츠부르크를 방문하는 크리스천 학자들은 시간을 내어 이 벽 그림 앞에서 보시기를 권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영안 (2018). **믿는다는 것-묻고 응답하고 실천하는 믿음**. 서울: 복 있는 사람.
- 고부응 (2018). **대학의 기업화**. 서울: 한울.
- 김영식 (2007). **과학, 인문학, 그리고 대학**. 서울: 생각의 나무.
- 김정인 역 (1999). **대학의 역사**. Charle, C. & Verger, J. (1989). *Histoire des université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서울: 한길크세주.
- 김정인 (2018). **대학과 권력-한국 대학 100년의 역사**. 서울: 휴머니스트.
- 김종인 (2004). **한국의 대학과 지식인은 왜 몰락하는가?**. 서울: 집문당.
- 박광현·정종현 역 (2017). **제국대학-근대 일본의 엘리트 육성 장치**. 天野郁夫 (2007). 帝國大學—近代日本のエリート育成装置, 中央公論新社. 서울: 산치림.
- 박영신 (2022). 대학의 소명: '자기 물음'을 위한 큰 배움터로, *현상과 인식*, 46(1). 25-50.
- 박진경 역 (1990). **기독교대학의 이념**, Holmes, A. F. (1987). *The Idea of Christian College*, Eerdmans(revised edition), 서울: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출판부.
- 백석기독교학회 (2002). **한국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백석저널 창간호.
- 백지윤 역 (2019). **교회의 정치학-기독교 세계 이후 교회의 형성과 실천**. Hauerwas, S. (1991). *After Christendom: How the Church Is to Behave If Freedom, Justice, and a Christian Nation Are Bad Ideas*, Abingdon Press. 서울: IVP
- 서보명 (2011). **대학의 몰락**. 서울: 동연출판사.
- 서원모 역 (1991).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Holmes, A. F. (1977). *All Truth Is God's Truth*, Eerdmans,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신정숙 역 (1988). **대학의 위기-기독교적 비판과 대안**. Malik, C. H. (1982). *A Christian Critique of the University*, InterVarsity Press. 서울: 성경읽기사.
- 안계춘 역 (1992). **대학의 이념과 학문의 윤리**. Shils, E. (1983), *The Academic Ethic: The Report of a Study Group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the Future of the Univers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서울: 나남.
- 안성찬 (2009). 전인교육으로서의 인문학-독일 신인문주의의 '교양(Bildung)' 사상, **인문논총**, 62, 99-126.
- 오진석 역 (2012). **학부들의 논쟁-세 편으로 이루어진 학부들의 논쟁**. Kant, I. (2005). *Der Streit der Fakultäten*, Hrsg. von Horst D. Brandt und Piero Giordanetti, Felix Meiner Verlag, 서울: 도서출판 b.
- 이광주 (2024). 대학의 역사 시리즈-1, 유럽 대학의 역사, **경북대 신문** 2024년 4월 9일 자.

- 이국운 (1999). 영국 법률가집단의 형성과정: 15세기~18세기, *법사학연구*, 20, 57-81.
- 이상현 역 (1997). **임마누엘 칸트**. Höffe, O. (2020), *Immauel Kant*, C.H.Beck(9. Auflage). 서울: 문예출판사.
- 이석우 (1998). **대학의 역사**. 서울: 한길사.
- 이수동 역 (1997). **대학의 이념**, Jaspers, K. (1980), *Die Idee der Universität*, Springer. 서울: 학지사.
- 이종인 역 (2019). **베네딕트 옵션-탈 기독교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선택**. Dreher, R. (2017). *The Benedict Option: A Strategy for Christians in a Post-Christian Nation*, Sentinel. 서울: IVP.
- 이철민 역 (2012). **신 없는 사람들-우리 시대 무신론의 오만과 편견**. McGrath, A. E. (2011). *Why God Won't Go Away-Engaging with the New Atheism*,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 서울: IVP.
- 이태하 (2011). 뉴먼의 신 존재 증명과 신앙의 합리성, *철학연구*, 119, 279-304.
- 조용훈 (2009). **기독교대학-한국 기독교지성의 현실과 미래**.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최형길 역 (2018). **기독교 수도원의 역사**. Frank, K. S. (2010). *Geschichte des christilichen Mönchtums*, Primus in Herder. 서울: 은성.
- 한남대학교 기독교문화연구소 (2005). **미국 기독교 대학의 교훈과 도전**. 대전: 한남대학교 출판부.
- 한동일 (2013). **유럽법의 기원**, 문예림.
- 허명수·김영길·임동철 역 (2008). **하버드가 잃어버린 교육-대학 교육의 미래는?**. Lewis, H. R. (2007). *Excellence Without a Soul: Does Liberal Education Have a Future?*, Public Affairs. 포항: 한동교육개발센터.
- Aquinas, T. (1955-57). *Contra Gentiles Book One: God*. Trans. Anton, C. Pegis, Hanover House, c. 3, par. 2
- Benne, R. (2001). *Quality with Soul-How Six Premier Colleges and Universities Keep Faith with Their Religious Traditions*, Grandrapids: Eerdman.
- Carpenter, J., Glanzer, P. & Lantinga, N. (Ed.) (2014). *Christian Higher Education: A Global Reconnaissance*, Grandrapids: Eerdman.
- Copson, A. (2019). *Secularism-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aileader, P. (2020). The Medieval Universities of Paris and Bologna: Structure and Operations, *WondriumDaily*, Oct. 1, 2020
- Hauerwas, S. (1999). *After Christendom?: How the Church is to Behave, If Freedom, Justice, and a Christian Nation are Bad Ideas*, Nashville: Abingdon Press(2nd edition).
- Henry, D. V. & Beaty M. D. (Ed.) (2006). *Christianity and the Soul of the University-Faith as a*

- Foundation for Intellectual Community*, New York: Baker Academics.
- Lindbeck, G. (1984). *The Nature of Doctrine-Religion and Theology in a Postliberal Ag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Marginson, S. (2019). Kantian University-Worldwide triumph and growing insecurity, *Australian University's Review* 61(1)
- Marsden, G. (1994). *The Soul of the American University-From Protestant Establishment to Established Nonbelief*,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ewman, J. H. (1852/2008). *The Idea of a University Defined and Illustrated: In Nine Discourses Delivered to the Catholics of Dublin*, The Project Gutenberg EBook, 2008. 2. 5.(released).

21세기 기독교대학의 이념 - 칸트와 흄스를 넘어서

The Idea of Christian University in the 21st Century

이 국 운 (한동대학교)

논문초록

이 글은 2025년의 대한민국이라는 시공간적 특수성을 전제하면서도, 가능한 한 그 제약을 뛰어넘어, 21세기 이후 기독교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념적 차원에서 제시해 보려는 시도이다. 저자는 대학이라는 제도의 기원을 신앙의 체계와 이성의 체계의 궁극적 양립을 지향하는 기독교적 낙관론에서 찾으면서, 대학의 실존 가능성을 그와 같은 기조를 위협하는 양극단의 도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가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일단 로마 가톨릭교회의 보편 통치 아래서 중세 유럽 대학이 신앙과 이성의 역동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조를 창설했으며, 그 구조가 서구의 근대 이후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살피고, 그와 같은 변형을 대학 운동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칸트가 제시했던 대학개혁론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고, 또 결과적으로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탐색한다. 나아가, 20세기 중반의 시점에서 이른바 연구 중심의 ‘멀티버시티’(mutiversity)로 전략한 대학 운동의 현실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특히 학부 대학 차원의 자유인문교양교육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독교대학의 모델을 제창했던 아서 흄스의 기획을 재검토한다. 마지막으로 2024년의 대한민국 또는 동아시아라는 시공간적 조건 속으로 돌아와 기독교적 낙관론에 입각한 대학 운동의 차원에서 칸트와 흄스의 디자인을 넘어서는 기독교대학의 새로운 전망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증하고 간략하게나마 그 이념을 제시한다. 이는 신앙과 이성, 초월과 세속 사이의 역동적 균형을 지향하며 21세기 대학 운동의 방향을 제안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주제어: 기독교대학, 대학 운동, 대학의 기원, 대학의 역사, 대학개혁론, 임마누엘 칸트, 아서 흄스